

저는 한국의 장례식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축제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임종하면 가족은 그 사람의 지인과 친족에게 부고합니다.

그리고 축제음식을 준비해 접대를 합니다. 장례식 중의 곡소리도 음악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돈도 받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이 축제와 같은 것은 한국인의 마음중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흘이 되면 시체를 관에 넣습니다. 이 의식후 마을에서 행진을 합니다.

관은 죽은이의 것이 아닌 신부의 가마와 같습니다. 그 후에 산에서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가족은 곡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49일간의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같습니다.